

# 인간의 오감으로 오롯이 자연을 느낀다

아트바캉스 '감각하는 자연'  
권부문·김지수·최선·최종운  
26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시각과 청각, 후각 등 감각을 통해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2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아트바캉스 '감각하는 자연: Explore Your Senses'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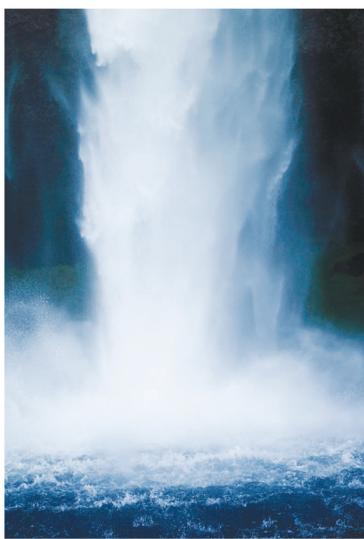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국내외에서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권부문·김지수·최선·최종운 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에서는 자연에서 채득한 이미지와 소리, 물질과 향기를 순차적으로 감상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작품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다양한 감각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시원하게 낙하하는 물줄기 사진부터 만난다. 권부문 작가의 사진은 정해진 형태가 없는 물의 흐름을 포착해 그 흐름의 형태를 표현한다. 아이슬란드에서 촬영한 흑백의 'SKOGAR(스코거)' 연작과 특정 지역의 장소성은 삭제했지만, 그 현장의 감각을 푸른색으로 표현한 'WATERFALL(워터폴)' 역시 시시각각 다른 모습의 폭포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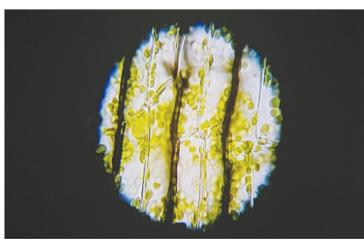
권 작가의 작품은 수직으로 일정하게 떨어지는 물의 흐름이 수평의 수면을 만났을 때의 역동성과 반복적인 움직임에서 나오는 미세한 차이를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보여준다.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정면으로 가만히 그 찰나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으면 물줄기에서 발산되는 거대한 에너지,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통해 느껴지는 자연의 생명력을 감각할 수 있다. 아련한 물소리를 따라 전시장의 더 깊숙한 곳으로 발을 들이면 최종운 작가의 '수직의 바다'와 마주 서게 된다. 서서히 일렁이는 파도의 물결은 그 소리와 함께 수평이 아닌 수직의 장벽으로 표현돼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미미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전시장 한편에는 전국 곳곳의 바다에서 채집한 소금이 놓여 있다. 최선 작가의 '소금은 말한다' 연작은 바닷속 소금을 통해 그곳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전한다. 소금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만지고 감각하며, 떨어진 소금이 관람객의 신체 어딘가 묻어 전시장 밖 어딘가로 옮겨져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와 기억이 함께 전달되는 방식이다.



권부문 'WATERFALL'



김지수 '식물과의 대화'

전시장을 나서며 들어갈 수 있는 윈도우 갤러리에는 김지수 작가의 '식물과의 대화'가 기다린다. 수생식물에게 말을 건네면 환하게 밝히는 빛과 함께 엽록체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공간 안에 퍼지는 식물의 향기는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식물의 존재를 확실하게 부각 해주며, 한 생태계 안에서 공존하는 생명체들의 소통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통을 통한 생존의 모습은 마지막 최선의 '부작함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염부들이 사용했던 이불 위에 그려진 이 연작은 생명이 꽃피울 수 없을 것만 같은 염전에서 자란 함초의 신비로운 붉은 색감으로 그려졌다. 염전에서 부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노트에 그려진 난초에서 영감을 받은 이 그림은 극한의 환경에서 자라난 생명의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과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 사유하게 만든다.

/이나라 기자

## 주성범 개인전 '설화의탄생' 내달 7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주성범 개인전 '설화의탄생'전이 내달 7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주성범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자연과 신화적 서사를 담은 상상 속의 풍경화 25점을 선보인다.

주성범 작가는 설화, 전설, 우화 등이 연상되는 이야기로 하나의 세계를 구성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산의 형상들은 씨앗의 이미지를 재구성한 것이다. 식물의 씨앗은 후대를 위한 유

전 정보가 담겨있으며,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는 설화, 또는 상상의 이미지가 씨앗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그가 작품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세상이 아닌 자연과 합일을 이루며, 자연과 인간은 필수불가결한 관계라는 존재론적 가치를 담고 있다.

주성범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개인전 7회, 기획 초대전 및 단체전 100여 회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시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나라 기자



## 문화 브리핑

- ◇월요 콘서트 '레인보우 클래식'=1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 ◇광산 무대나눔 프로젝트 '타악기의 울림 MATA'=12일 오후 7시 30분-오후 8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
- ◇슈퍼문 특별관측=13일 오후 8시-밤 9시 30분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
- ◇새아리아리 국악단 초청 울(律)의 몸짓=14일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
- ◇썸머 페스티벌 맛있는 클래식=14일 오후 7시 30분 여수 예술마루
- ◇광주시립오페라단 북구문화센터 초청공연 '콘서트 오페라, 미술피리'=15일 오후 7시 30분 북구문화센터
- ◇조민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15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 ◇'삶의 질을 높이는 정리수납'=16일 오후 2시 서구문화센터 1층 꿈나무실
- ◇이당금의 지구여행 음악콘서트 NS재즈밴드=16일 오후 4시 금호아트홀
- ◇'6월의 정원 전'=17일까지 드영미술관(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 ◇광주신원문화농악 '벚대가릿모시기'=17일 오후 7시 쌍암호수공원
- ◇레고로 즐기는 보훈탐험=8월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원당산청소년문화의 집(오후 1-4시)
- ◇아메리칸 코너 무비 데이=16일 오후 3시 온라인 줌(ZOOM)
- ◇2022 드영미술관 기획전시 '6월의 정원' 전=17일까지 드영미술관 제1, 2 전시실(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 ◇2022 비엔날레 미디어퍼사드 지역작가 작품전&아트클래스=23일까지 매주 토요일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오후 6시 30분-오후 8시 30분)
- ◇특별기획전 김종일&정송규 '단색추상화' 전=3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시 '푸른 기억 미래의 현장'=30일까지 이강미술관(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 ◇특별전 여수, 그 시절의 바다=8월 15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오전 10시-오후 6시)
- ◇퓨어민전:한 시대를 웃다! in 광주=8월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1관
- ◇사진전시관 기획전 I=9월 25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사진전시관(오전 10시-오후 6시)

## 어린이 '직업체험 특별전' 문 연다

ACC재단 '키자니아 Go!'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직업체험 특별전 '키자니아 Go! 광주'가 오는 29일 문을 연다.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인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2022 어린이 직업체험 특별전 '키자니아 Go! 광주'를 개최한다.

'키자니아(KidZania)'는 전 세계 누적 관람객이 9,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브랜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각색한 현실감 높은 체험 공간과 진로·직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권역 최초로 키자니아의 핵심

콘텐츠를 선보이는 이번 '키자니아 Go! 광주'에서는 15개의 엄선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국내 키자니아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특별 프로그램도 구성해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들은 현실세계를 축소한 도시환경 속에서 119 구급대원, 건설 코디네이터, 과학수사대원, 수의사, 마술사, 헤어디자이너, 승무원, 간호사, 웹툰 작가, 플로리스트,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업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미있게 각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키자니아 Go! 광주' 관람권은 위메프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 시 할인 혜택과 함께 응진싱크빅과 동아제약 등 협찬사가 제공하는 푸짐한 선물도 증정된다.

전시내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키자니아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 중인 소방서 체험.

/ACC재단 제공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